

인물초점 - <시험과 체벌이 없는 학교> 낸 서울영훈국교 박성방 교장

“열린교육은 아이들 다양한 능력에 교사가 맞춰나가는 것”

학생존중이 기본철학, 교사들에 지침서 됐으면

열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책을 썼다”고

“열린교육의 철학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놔둘 때 더 잘 배우고,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독특성을 저마다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있다”는 박 교장은 공부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단정을 내리기보다 느린 속도를 인정하고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내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등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열린교육’이라고 설명한다.

84년 이 학교 교장으로 부

임하자 복도를 걸어 교실을 넓히고 교실사이에 벽을 없앴다. 영훈국교는 수업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타종’도 하지 않는다. 물론 1, 2등 등급을 매기는 시험도 없고 체벌도 없다.

“결과보다 과정과 애초 약속했던 것에 대한 책임완수를 더 중시합니다. 학기말 시험이 따로 있지 않은 대신 날마다 학습지를 풀고 스스로 채점하게 하며 수업태도 등을 종합한 교사의 진단평가가 있지요. 산수 점수가 몇점으로 표현되는 대신 계산능력, 도형부문 등을 세분화해서 계산은 잘 하는데

이 관찰하고 세밀한 것까지 관심을 쏟는 것이죠.”

열린교육은 이미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86년부터 영훈, 운현국교 등에서 처음 시도되어 현재는 전국 50여개 공·사립학교로 확대, 실시 중이다. 박 씨는 열린교육은 무엇보다 교사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교를 방문하는 분 중에 서머힐로 오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자율을 방임으로

오해하고 열린교육이 중·고등학교로 연계되지 않는 점을 아주 우려하곤 합니다. 그러나 열린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어디에 가든 몸에 익힌 자율 학습, 생애학습 능력으로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결론입니다.”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박 교장은 열린교육의 기본은 ‘학생존중’이라며 이번 저서가 많은 교사들에게 기본지침이 되기를 희망했다.

<박혜숙 기자>



▲박성방 영훈국교 교장

“똑같은 내용을 같은 시간안에 일률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주입식 교육이라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교사가 맞춰나가는 교육이 열린교육입니다.”

8년간 열린교육을 실시해온 서울 영훈국교 박성방(60) 교장이 최근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담은 <시험과 체벌이 없는 학교>를 펴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열린교육의 현장을 보고자 영훈국교를 찾는